

## 교회를 무슨 재미로 가(?)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가인이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에 나가 에덴 동편 못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뿔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4:16~24]

셋은 일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십이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오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십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개역, 창세기 5:6~14]

## 제

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좀 점잖지 못하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 올해부터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게 되면 좀 세련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누가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교회를 재미로 다니면 안 됩니까? 질문을 조금 바꿀게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까?

아멘.

재미있다면 재미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가끔 물어요. “야! 고리타분하게 거기 뭐하러 가냐?”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재미있으니까 가죠. 재미있어서 간다고 대답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니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보다 더 무서운 애가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는 애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언젠가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모였습니다. 엄마들이 학교에 모이면 참 고민이 많아요. 선생님, 우리 애는 어떻게 우린 애는 어떻게 이러는데요, 한 애 엄마는 “선생님 참 걱정이예요.” “왜요?” “애가 잠을 안 자요.” “잠 안 자고 뭐 하는데요?” “자라 자라 해도 안 자고 공부만 해요.” 그 학부형에게 다시는 학교 오지 말라고 쫓아버렸습니다. 왜요? 다른 학부형 어디 기죽일 일 있어요?

실제로 그 아이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 합니다. ‘송래’란 애한테 애들이 가끔 학교 오는 길에 오락실 갔다가 옵니다. 오락실 갔다가 늦게 와서 혼나는 애들이 더러 있거든요. 오락실 갔다가 늦어서 야단을 맞는데 한 녀석이 “선생님 송래도 오락실 갔는데요.” 하는 겁니다. “니/너/ 말 잘 했다. 송래는 오락실 갈려고 하면 내가 돈을 쥐 가지고도 보내고 싶은 아이다. 너 송래 따라하려고 한다면 오락실 얼마든지 보내줄게. 송래 공부하는 것 반만 따라해라.” 그랬더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짹짹 비는 겁니다. 개 흥내 못 내요. 개는 공부하는 게 즐거운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끝나고 애들이 흥청망청 지낼 때, 온 친지가 뒤집어져도 꿈쩍 않고 앉아서 책 붙들고 있는데 긴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재미있냐?” “재미있어요” 정말 잘 합니다. 다른 애들 선수(先受) 학습한다고 학원 쫓아다닐 때 학원 안 가고 혼자 앉아 책 붙들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의 마쳐버린 아이입니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재미로 합니까? 아니요. 아니지만 공부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하는 아이는 이겨낼 장사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있습니까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다라는 고백만 나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거의 다 제대로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별 의미가 없는 듯 싶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묘미가 있어요. 이 안에 족보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입니다. 이걸 누구의 족보일까요?

가인.

예, 가인의 족보입니다. 5장 전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아담의 족보라고 해도 되겠고 셋의 족보라고 해도 되겠는데 편의상 우선은 셋의 족보라고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찬찬히 보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고 없고.

가인의 족보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나이는 없고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많이 있고요?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는 자손들이 거창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셋의 족보는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향수가...

아, 향수(享壽)가... 수를 누렸다는 얘기죠? 가인의 족보는 그냥 낳았다는 족보만 있고 셋의 족보는 그 수명을 누렸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발견 중의 하나입니다. 또 있나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한 절이 대체로 좀 길어요. 길쭉길쭉해요. 아까 성경 교독을 할 때 왜 잘 안됐죠? 셋의 족보를 읽을 때는 끊어야 하는데 계속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데요. 왜 그래요? 너무 짧아서 그래요. 짧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셋의 족보에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낳고 향수하고 또? 쉬운 말로 하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갔다는 얘깁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족보에는 할 얘기가 셋의 족보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겁니다. 거창한 일들을 많이 정리해 놓은 족보입니다. 길으로 보아도 이런 표가 금방 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진화론과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세상은 원래 아무 것도 없던 세상인데 거기에서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 생겨나고 차츰차츰 발전해서 이렇게 문명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죠?

미개인.

물론 미개인이죠. 미개인이 주로 뭐하고 살았겠어요? 처음엔? 숲에서 꼭 짐승같이 살았죠. 주로 원숭이같이 살다가 내려와서 목축도 하게 되고 문명화 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 '공룡 백만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첫 장면에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숲 속에 털복숭이 원숭이 몇 마리가 나와서 설치는데 몇 장면 안 지나서 현대인과 복장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원숭이나 짐승처럼 살았더라는 전제 하에서 진화론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 인류가 지금 현대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처음부터 원시인처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목축했고 처음부터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제일 부러운 것이 수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백년이죠. 한 80쯤 살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구백년 정도는 거뜬히 넘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 됐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에도 구백년 넘어 살았습니다. 이것을 신화로 취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백년 이상 살았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질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월등히 좋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물을 이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잘 붙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마리 정도에게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상한 짐승이 왔습니다. 너 말, 그 다음에 너는 개, 너는 생긴 게 지저분하니까 돼지...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몇 종류 정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부족으로 아마 곧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나중에 뒤섞여 버리면 가만 있어봐라 애한테 이름을 내가 뭐라고 붙였던가? 야는 이름을 붙였던가 안 붙였던가? 헛갈리기 시작하면 도저히 못 해냅니다.

아담이 그 많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일일이 붙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 다른 두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쉽게 설명이 돼요. 머리가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무거운 부분입니다. 떨어질 때 항상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이게 무거우니까 교통사고 나면 어디를 먼저 다쳐요? 여기(뺨)부터 다치잖아요. 이 무거운 걸 이고 다니다가 쿵 하니까 여기부터 안 다칩니까? 이 무거운 머리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속에 들어 있는 두뇌를 평생토록 열심히 쓰면 얼마나 쓰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들으신 적 있을걸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약 5% 정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쓰면 3% 내지 5% 정도 쓰고 아주 뛰어난 천재같으면 한 10% 쓴다고 그러네요. 쓰지도 않을 95%를, 이 무거운 두뇌를 왜 가지고 다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은 이 머리를 완전하게 다 썼을 겁니다. 그 흔적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생존이란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발달하게 되었고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놈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두뇌가 원래 조그만 했는데 자꾸 머리를 쓰고 쓰고 하니까 차츰차츰 커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두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저축해놓고, 쓰기는 한쪽 귀통이 조금밖에 쓰고 있지 않는 부동산 부자 같습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넉넉하게 저축해놓고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화론의 얘기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진화론의 얘기보다 초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두뇌와 여러가지 나은 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꼭 공부하시라고 권합니다. 인류 초기에 발달했던 문명이 노아 홍수시대에 완전히 사라지면서 수명도 줄고 두뇌도 더 이상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회복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신문에 게놈이라 하기도 하고 지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명체의 비밀을 해독하고 난 다음에 신의 영역에 사람이 들어섰다고 막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들어섰다고요?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곳에 겨우 한 발짝 들이민 것 같은데 혹시나 잘못해서 더 위험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히 신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일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세상에 겨우 구멍 하나 내고 그 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지금 우리의 세계와는 엄청나게 달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인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아주 먼 옛날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았답니다. 성을 쌓는 것이 보통 기술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올리면 성이 쌓아지는 것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실력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니까 아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식으로 말을 한다면 당시에 가장 중심 되는 산업이 목축이고 육축이었으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 경제계의 거물이 되었다라는 표현과 비슷할 겁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하면 문화 예술계의 거장인 셈이죠. 쉘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각종 날카

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쇠가 만들어진 게 도대체 언제든 이 먼 옛날에 기계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로 남겨두고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다는 것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공업 혹은 중공업계의 거물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날카로운 기계라고 하는 걸로 봐서 무기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 최첨단 무기를 제조하거나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이 경제계의 거물, 예술계의 거장,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들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 세 아들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가졌다고 하는데 두 아내를 가졌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별 문제 아닙니까?

단순하게 아내를 둘 가졌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내를 가졌다는 얘기가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좀 했더라는 그런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얘깁니다. 이 라멕을 최초의 중혼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아내를 거느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라멕의 큰 소리가 23절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다와 쉴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창상이라는 것은 조금 다쳤다는 겁니다. 조금 찢렸거나 베였거나 하는 정도죠. 내가 조금 다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얘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인 거 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칠 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정당하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이 칠십칠 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내게 큰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좀 입혔지만 내가 그를 죽인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엮고 큰 소리를 쳐대는 것이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반면에 셋의 족보는 그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것밖에 없어요. 도중에 조금 특이한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낳고 죽고 외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있죠? 22절 23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는 얘기를 보면 "야, 그 사람들 참 멋지게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삼백년간 동행하였더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그 사람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들죠?

괜히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대답하시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인데 조금 바꿉시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스물다섯에 시집을 가서 칠십이 되도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러면 이야 재미있게 살았겠구나 그래요? 뭐라고 그러세요? 시집살이 많이 했겠다 그러죠? 하나님과 삼백년 동행했다더라 그러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고생 많이 했겠다.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러세요? 우와 재미있게 살았다 이걸 아니죠?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면 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런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좌우간 셋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특이한 기록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이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셋의 족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셋의 족보를 읽으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삼백년 동안 동행하였으리라는 그 구절 보면서 아 참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여기시면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겠지요. 아! 에녹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고생 많이 했겠다, 아니면 시집살이 되게 했겠다,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이런 느낌이 드시면 내가 지금 그렇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족보를 조금 더 비교해봅시다. 가인의 족보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아! 이거 참 매력적이다 싶은 것 말입니다. ‘두 아내를 가졌더라’ 이게 좀 부럽지 않습니까? 말 잘못했다가 집에 가서 큰일나겠다 싶어서 조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심리가 다분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창조의 질서에 거역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아내 아니 가능만 하다면 셋, 넷의 아내를 가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분이 바람을 피우고 두 집 살림을 더 하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자기는 아래층에 살면서 한 집 더 사는 아파트가 같은 동의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비밀이 유지가 되었답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가서 밑으로 안 가고 올라간 거죠. 거기 가서 운동(?)하고 오니까 절대 거짓말도 아니죠. 참 오래 살았답니다. 그게 들통이 안 날 텐데 왜 들통이 났을까요?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

어떻게 알아요? 우리 김범하 집사님 참 아는 게 많아요.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어 이상하다 저 아저씨 언제는 보니까 아래층에 있더니 언제는 또 위층에 있다? 그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보게 되지요. 유심히 보니까 위에도 살고 밑에도 사는 게 맞더랍니다. 이래서 들통이 났다는 거죠. 정말 간이 큰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그렇게 살더라 애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애인 하나 없이 무슨 낙으로 사느냐구요. 저는 그게 한때 유행처럼 그러고 지나간 줄 알았어요.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만큼 든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을 하나씩 만들어 뒀다 한다는 것이 유행병처럼 번져서 이게 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한때 그러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요. 요즘도 그게 끝난 얘기는 아니라 그러네요.

이 시대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음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들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말로 조금 들은 상태밖에 안 되죠. 그러니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음란한 세대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게 나이 많은 친구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이 분들이 십여년 전에 춤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춤을 배우는데 기간은 관계없이 삼십만원만 내면 다 배울 때까지 항상 그 집에 가서 배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십년 전에 삼십만원입니다. 좀 젊은 분은 그 과정을 다 떼었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은 한 1주일 다니다가 때려치웠답니다. 돈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때려치워요?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등록을 했는데 하도 꾸중을 들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때려치워 버렸는데 물론 그 사모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춤을 왜 그렇게 배울려고 열심히 다닐까요? 춤 추는 게 좋아서요? 단순히 춤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외의 다른 여자와 놀기에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에 열심히 배우러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면에 성공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군요. 간단한 포크댄스 하나 제대로 박자 못 맞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춤을 추겠어요. 카바레라는 곳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포항에서 만기되서 경주로 떠나기 전에 선생님들이 환송회 한다고 가자 가자 하길래 제가 단서 딱! 하나 붙이고 따라갔습니다. 가만 앉아서 옷만 지킬게, 나가자 소리만 안 하면 갈게 하고 따라갔습니다. 제철 가다 보면 전화국 맞은편에 새로 지어진 근사한 카바레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약속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 구경할만 하대요. 그런데 처음 약속, 술 먹는 사람들 약속 믿을 게 못 되요. 기어코 붙들려 나갔죠. 그 바람에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무대라고 하면 뭘텐데 플로어라고 그러데요. 올라가서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넘어지는 거 예요. 몇 번을 넘어지니까 봐 주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바닥을 왜 저렇게 미끄럽게 해놨어? 아시는 분 계세요? 얘기하다가 또 찍힐 것 같아서 얘기 안하죠? 집사님 몰라요?

(김범하 집사님께서 손가락을 빙빙 돌림)

이러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왜 저렇게 미끄럽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잘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 둔답니다. 익숙한 사람은 올라가면 거기서 팽팡 잘 돌아가는데 익숙치 못한 사람은 견지를 못해요. 미끄러워서요. 그래서 그날 여러 번 넘어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미끄러진 거죠. 구체불능이라는 판정을 받고서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흥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서 있지도 못하는 주제에 오기는 뭣 하러 왔냐고? 이것이 어찌면 우리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른 작은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사는 것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돈 좀 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돈 뿌리며 사는 재미로 삽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철 직원 중에 묘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아주 옛날 이야기 입니다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만원짜리 쪽 뿌리고 그랬다고 하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있는 높은데 올라가서 만원짜리 다발 한번 풀어서 쪽 뿌리고 내려다 보십시오. 그렇게 재미있단가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돈을 펄펄 쓰며 사는 재미난 방법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예술계의 거장요? 예술하는 사람들을 욕보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라고 하는 그 화려함 속에 숨어 있는 뒷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터져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물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 주에 설교 작성을 하면서 신문을 잠깐 보니까 오현경이라는 사람이 귀국했다고 신문마다 한쪽 귀퉁이에 다 나 있더라고요. 오현경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누군데 자꾸 신문마다 귀국했다고 그러나 제가 암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며칠 뒤에 다른 친구들 만나서 물었다가 욕 한마디 들어왔어요. '형시 같은 게' 이러더라고요. 한때 시끌벅적했던 오양 비디오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거죠. 좋은 소리는 못 들어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화려함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란과 좋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배어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환호하는데 그것은 드러나는 겉모습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모습이 멋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조그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에 맛을 들이면 마약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너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좁습니다. 기껏해야 남에게 들은 한 두 마디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인지 알기가... 그냥 상상이 될 뿐입니다.

돈이 나쁘고 예술이 나쁘고 과학의 발달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멋진, 휘황찬란한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았는데 그 문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 문화는 화려하고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 문화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희들끼리 화려한 문화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 이 문화의 문제점이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생활 하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구속이 많습니까?

구속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좀 놀려고 하니까 또 주일이야? 돈 좀 쓸려고 하니까 뭐 어디 좀 내야 하고 괴롭습니까? 안 괴로우세요? 안 믿는 사람은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우리는 못 하는 게 많아요. 왜요? 돈이 넉넉지 못하고, 그 다음? 새벽기도 가야지요. 아니면 구역예배 가야지요. 뭐 이리저리 걸려서 못 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떤 친구가 날 보고 물었어요.

“야, 도대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저도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즐겁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고 정말 즐겁냐고 물어보세요. 단, 내가 괴로워서 천날 만날 쯤 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물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들 눈에 보일 때에 너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냐고 한마디 물으면 대답 잘 안 해요. “글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게 제가 들은 대답입니다. 다른 낙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자유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떨 때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 되어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에게는 이게 절대 구속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요? 예수 좀 제대로 믿을려고 하면 거의 날마다 교회 가야 되죠? 새벽기도니까 날마다는 확실하네요. 새벽에만 갑니까? 저녁에도? 한번 두번 갑니까? 조금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특별 새벽기도, 특별새벽기도 끝나면 그 다음 새벽기도 없습니까? 예수 믿노라고 발을 들여 놓으면 자꾸 들어가죠? 그게 괴로운 사람에게는 한량없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롭고 기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움과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는 돈도 명예도 기술도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가인의 족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5장은 우리가 흔히 셋의 족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5장은 당연히 셋의 족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시면 셋의 족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족보요?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것은 아담의 족보란 뜻입니다. 가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도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4장을 가인의 족보라 해놓고 5장을 아담의 족보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장은 첫째 아들 가인의 족보입니다. 5장은 당연히 셋의 족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아담의 족보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합시다. 족보에서 빠버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4장의 이 화려하고 멋진 족보는 아담의 족보에서 빼내버린 사람들의 족보란 얘깁니다. 족보에서 파버린단 말을 하죠. 4장의 족보는 아무리 화려하고 모양이 번듯해도 족보에서 파버린 사람들의 족보란 사실입니다. 이 4장 족보의 화려함을 보고 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큰 소리 치며 사는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족보만이 아니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 써가며, 큰소리 쳐가며 멋지게 사는 것 보시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도 아니며 진정으로 즐거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제발 내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났으면 뭐부터 해야지요? 안면에 완전히 철관 깔고,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 놓고도 무조건 큰소리부터 쳐야 됩니다. 붙어 싸울 자신 있으세요? 없거든 사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속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속도 많이 내시는 분 저 좀 알아요. 내지 마십시오. 교통신호요? 철저히 지키십시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의 큰 소리와 붙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싸우는 거 보면 철관 깔고 완전한 거짓말을 마구 해댁니다. 큰 소리 좀 쳐볼려고 해도 우린 잘 안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고 우리는 뒤에 누가 보고 계시는대요. 큰 소리 칠 재간도 없고 거짓말 할 재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예 사고 근처에 얼씬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보같은 게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편한데... 그 조그마한 거짓말 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에 쪼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교통사고를 났다는 말을 들으면 전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사고 내지 마십시오. 당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하지 마시고 제 말의 의미를 잘 새겨 주십시오. 왜냐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했으면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낮아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전 괴롭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 사람들은 마음껏 큰소리 치며 활개 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언뜻 보기

에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족보에서 빼낸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아담의 족보 말이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열심히 갑니다. 왜 그래요? 다른 얘기도 좀 넣어서 족보 좀 멋있게 만들면 안 됩니까?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아요. 목표가 어딴니까? 예수님이죠. 다른 얘기 다 잘라 내고 낳고 죽고 열심히 했어요. 빨리 가자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까지요. 이 족보의 끝은 일단 예수님까지 가는 족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깁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 내려오는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내리는 족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저래서 무슨 낙으로 사느냐 싶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녹아있는 삶이라는 얘깁니다.

지난 주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다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해도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심판 안 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자기 희생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이 족보에는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다 급해 다른 얘기 다 빼고 빨리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잘 살았던 내용이 나오면 잠시 언급을 하고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삼백년간 동행하였더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알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히려 그 삶을 느끼고 살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면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골치 아픈 노인네 모시고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주시며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분을 언제까지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려 하십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 가느냐구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너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재미있냐? 내가 가진 재미 한번 보여줄까?”라는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하고 데리고 왔더니 아! 이 교회 좀 다르네. 이런 마음이 들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지 아직 1년도 채 안되서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편안하다고요? 잠시 쉴 틈이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허준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예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에 너무 부러움의 눈길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미건조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족보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지 체험하며, 느끼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